

# 2023년 9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대전MBC

## 1. 회의개최

연번	일시	장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국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1	'23.9.26.	대전MBC 4층 회의실 (대면회의)	6/10	5	2	13	○		

### ○ 회의 참석자 명단

#### ① 시청자위원 명단

손병우 위원장, 마정미 위원, 김정동 위원  
장래숙 위원, 윤지석 위원, 이진희 위원

####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 : 김환균 사장,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최기웅 보도국장,  
이상욱 편성국장, 정수진 인프라국장
- 경영진 외 : 이은표 간사, 이재근 실무담당

##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5	4	-	2	11	-	11

### 나. 사업자 반영

구분	수용	의견참고	반론	합계
건수	11	-	-	11

## 다. 전월(8월)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보도	<대전시 행정부시장 명예퇴직 보도> 행정부시장 명예퇴직 신청 보도가 선거 운동을 간접적으로 홍보해 주는게 아닌지 궁금함.	홍보 목적은 없음. 다만 대전시의 중요한 인사인데 어떤 이유를 생략한 채 보도하게 되면 시청자들이 더 궁금해 할 수 있음. 유의하겠음 <23. 9월 조치>	'22.8월
보도	<방문객 수 보도> 방문객 집계 보도를 할 때 전년도 같은 시기와 비교해 가지국 접속기록을 파악하거나 구글,네이버 빅데이터 등 유입량 예측을 트렌드에 맞게 보도해 주기 바람	앞으로 행사 등 방문객 집계 보도시 구글이나 네이버 등 객관적인 수치를 근거로 보도를 하겠음. <23. 9월 조치>	'22.8월
보도	<0시 축제 행사 보도> 1.축제 앞면에 보이는 좋은 모습 이면에 그 주변의 상인들이나 다른 피해가 없었는지 점검하는 보도 필요 2. 행사장 주변 교통 문제와 민원만 보도할게 아니라 노점 도시를 탈피하기 위한 애정있는 행사 보도도 필요	1. 축제를 기획하면서 조금 무리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단독 꼭지로 보도할 예정 2. 교통문제는 당시 실제 교통 불편이 야기돼서 대안이 미숙한 점을 지적함으로써 내년 행사 때 보완 차원에서 보도함 <23. 9월 조치>	'22.8월
보도	<대전시 브랜드 관련 보도> 다양한 브랜드들이나 정체성을 키워야 된다고 하는데 당위적인 얘기를 말고 실질적인 방향성을 제시해 주길 바람	대전을 상징하는 부분들을 개발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해답이지만 고민해서 접근하도록 하겠음 <23. 9월 조치>	'22.8월
보도	<월평동 주거환경 개선 보도> 주거 환경 개선 정책을 인터뷰할 때 거리 공연이나 한마을축제 등 문화정책만 얘기했는데 대안이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듭	월평동 화상경매장 관련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저희가 유념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노력하겠음 <23. 9월 조치>	'22.8월
보도	<장애인 일자리 보도> 장애인 일자리 관련 보도를 할 때 정부출연연구소들의 R&D예산 요구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연계해서 보도해 주었으면 함.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문제는 국감의 단골 이슈이기도 한데 상시적으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겠음. <23. 9월 조치>	'22.8월
보도	<전국뉴스 중복 배치> 중요한 사건의 경우 전국 뉴스에 나가고 또 바로 이어서 같은 내용으로 지역 뉴스에 나가는 경우 배치와 차별화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함.	곧바로 릴레이를 받아서 로컬뉴스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자칫 로컬을 뺏다가 서울도 안나가게 되면 불방이 되기 때문에 디테일을 살리는 쪽으로 편집해서 배치하고 있음 <23. 9월 조치>	'22.8월
교양	<연중캠페인> 연중캠페인이 매월 1일과 15일 두 번씩 올라오는데 8월에는 15일 이후 올라온 것이 없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8월 후반부 캠페인은 제작 지원 문제 때문에 제작을 안했음. 9월1일부터 별곡제 뺄소편을 송출할 예정 <23. 9월 조치>	'22.8월

교양	<b>&lt;건강플러스 - 출연진과 주제&gt;</b> 1. 의사 한분만 출연하는데 보조진행자로서 다른 의사도 출연하면 더 부드러운 진행이 될 것 같음. 동영상 그래픽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함 2. 어른 중심의 다양한 정보 제공은 좋는데 청소년 정신건강과 어른들 정신건강까지 다뤄주면 좋겠음	1. 보조진행자 부분은 제작진과 협의해서 고민을 해보겠음. 동영상은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제작이 어려운데 병원쪽과 협의해 보겠음 2. 정신건강 아이টে은 영상으로 구현하기 힘든 분야이긴 한데 제작진과 협의해서 적당한 시기에 다뤄보도록 하겠음 <b>&lt;23. 9월 조치&gt;</b>	'22.8월
교양	<b>&lt;지역 소상공인 관련 콘텐츠&gt;</b> <오늘M>에서 지역 소상공인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소상공인 관련 콘텐츠를 제작해 주기 바람	'오늘의 면접'코너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다양한 사업장, 소상공인들을 자주 소개하겠음 <b>&lt;23. 9월 조치&gt;</b>	'22.8월
교양	<b>&lt;광복절 특집 프로그램&gt;</b> 광복절 관련해서 독립투사 등 관련 프로그램을 보지 못한 것 같음.	광복절 특집으로 <세 개의 조국>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내부 사정으로 제작진 교체 때문에 9월 창사기념 특집 방송으로 연기됨. <b>&lt;23. 9월 조치&gt;</b>	'22.8월
기타	<b>&lt;시청자계사판 의견 관련 &gt;</b> 뉴스에서 '한국타이어'를 '한타'라고 줄여서 말하는데 표준말을 사용해 주기 바람	앞으로 뉴스에서 줄임말이 아닌 표준말 사용에 신경쓰도록 하겠음. <b>&lt;23. 9월 조치&gt;</b>	'22.8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내용	조치내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해당사항 없음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2023년 9월에 집계된 시청자 불만사항 회의 전 고지	○
시청자위원 및 임원진이 함께 공유하는 온라인 대화방 개설	○

4.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대전MBC 홈페이지 공개

나. 시청자위원 명단

(임기 : 위원별 상이)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문	비고 (임기)*
위원장	손병우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사)한국언론정보학회	언론단체	23.05.01~25.04.30
부위원장	박주영	대전지방변호사회 부회장	대전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23.05.01~25.04.30
위원	마정미	한남대학교 정치언론학과 교수	충청언론학회	언론단체	22.05.01~23.04.30
위원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대전참여자치 시민연대	소외계층대변	22.05.01~23.04.30
위원	박미숙	(주)비앤비컴퍼니 대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	경제단체	22.05.01~23.04.30
위원	장래숙	대전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대전광역시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단체	23.05.01~25.04.30
위원	김영진	사회적협동조합혁신청 이사장	대전청년내일센터	소외계층대변	23.05.01~25.04.30
위원	이인복	원도심문화예술행동 사무국장	원도심문화예술행동	문화단체	23.05.01~25.04.30
위원	윤지석	대전광역시의회사회 부회장	대전광역시의회	과학기술단체	23.05.01~25.04.30
위원	이진희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협회장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	인권단체	23.05.01~25.04.30

##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2023년 9월 대전MBC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인권센터 폐쇄 보도> 12월에 문을 닫는 인권센터들이 있는데 이와 관련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보도해 주었으면 함.	회의록 첨부	○		
보도	<학교 관련 보도> 학교 관련 보도를 할 때 학생,교사,학부모 각자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감성보다는 이성을 중시하는 쪽으로 방송했으면 함	회의록 첨부	○		
보도	<도로 청소 관련 보도> 도로 청소 관할에 대한 뉴스를 봤는데 담배꽂이나 쓰레기 투척을 하지 않는 습관을 갖자는 내용도 포함되었으면 함.	회의록 첨부	○		
보도	<시정, 도정 보도> 뉴스에서 시정과 도정 정책 내용을 보도하고 있지만 조금 더 알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해 주었으면 함	회의록 첨부	○		
보도	<‘묻지마 폭행’ 표현> ‘묻지마 폭행’ 관련 보도시 전문가들은 ‘묻지마’ 표현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함. 표현에 신경을 써 주었으면 함.	회의록 첨부	○		
교양	<토론 패널 구성> 후쿠시마 처리수 관련해 패널들이 반대 의견만 얘기했는데 양쪽 주장으로 패널을 구성했으면 함.	회의록 첨부	○		
교양	<시사M 포맷 구성 방식> ‘풍문으로 들었소’와 ‘PD가 간다’ 포맷이 비슷해서 지루한 느낌이 있음. 심폐소생술 방송도 길다는 느낌. 한쪽지 간단하게 추가하면 어떨지?	회의록 첨부	○		
교양	<인생 내컷> 네이밍도 좋고 자서전 같은 형식으로 그들의 직업과 삶의 애환을 다루는 점이 아주 좋아 보여... 영상미를 잘 살려주었으면 함	회의록 첨부	○		
교양	<오늘M> ‘골목의 맛’이 숨겨진 맛집을 찾아가고 문화를 보여주는데 의미는 있지만 다른 먹방과 어떻게 차별화할지?	회의록 첨부	○		
기타	<국제태권도대회 댓글 관리> 대회진행과 관련해 댓글에 어린이들이 새벽부터 와서 오후 늦게까지 대기하다보니 지쳐서 잔다는 글이 있는데 공동주최측에 전달해 주었으면 함	회의록 첨부	○		
기타	<시청자게시판 의견 관련 > FM모닝쇼 신청곡 게시판을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비공개로 했으면 함.	시스템을 수정해서 개선하겠습니다	○		

□ 일시 : 2023년 9월 26일(화) 오후 4시

□ 장소 : 대전MBC 4층 대회의실

□ 시청자위원회 참석자 : (총 6명)

손병우 위원장, 마정미 위원, 김정동 위원, 장래숙 위원, 윤지석 위원, 이진희 위원

□ 회사 참석자 : (총 7명)

김환균 사장,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최기웅 보도국장,

이상욱 편성국장, 정수진 인프라국장, 이은표 간사, 이재근 실무담당

□ 회의록 전문

이은표 간사

지금부터 9월 시청자위원회를 정기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10분 중에서 6분 참석하셔서 성원이 됐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9월 대전MBC 홈페이지에 올라온 시청자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본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4건의 의견이 올라왔는데요. 대전MBC배 국제오픈태권도대회 관련 문의가 2건 있었고요. FM모닝쇼 게시판에 개인 정보에 대한 걱정 1건 그리고 MBC세종의 통합 출범에 대한 관심 1건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적합한 답변을 드렸고요. 궁금하신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시청자위원회 정기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전MBC 김환균 사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환균 사장

안녕하세요. 비가 여름 장마처럼 내려서 자칫하면 감기 걸리기 쉬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건강들 유의하시구요. 대전MBC는 오늘 59살 창사기념식을 했습니다. 내년이 되면 창사 60주년 인데요. 100년 친구 대전MBC인데 100년이 금방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천년 친구가 되자 그랬습니다. 개편을 하면서 시사프로그램과 휴먼다큐 공동 제작을 선 보였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제작하느라 고민도 많습니다.

시사 프로그램은 우리 지역의 주요 이슈들을 시청자들에게 잘 알려드리자 하는 점에서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는 판단 하에 편성해서 개편을 했고요. 오늘 많은 의견을 주실 것 같아요.

제작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가감 없이 좋은 의견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은표 간사

이번에는 시청자위원을 대표해서 손병우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정기회의를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손병우 위원장

대전MBC가 개국한 날이 1964년 9월 26일이네요. 첫 전파를 발사한 날인데 이렇게 뜻 깊은 날 시청자위원회가 열리게 돼서 저희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59주년, 60주년 함께하게 될 텐데요. 더욱 뜻 깊은 60주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모니터를 열심히 해서 좋은 의견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진희 위원님부터 해 주시면 가능하실까요? 의견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희 위원

9월 개편으로 전반적으로 굉장히 풍성해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용도 많이 애쓰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도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임세혁 아나운서를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인생내컷>도 MBC충북하고 함께 제작하시고 <오늘M>도 내용을 조금 더 손보신 것 같습니다.

9월 10일 <인생내컷>에서 플랫폼 노동자 라이더 유니온 길한샘 선생님 얘기는 굉장히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플랫폼 노동자와 관련된 내용들을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 같고 굉장히 특별한 삶이었던 것 같아요.

젊은 청년이 갖고 있는 삶 자체를 감동적으로 보았고 내용을 길게 편성하셨는데 이런 내용이 제일 기억에 남았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대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길한샘씨가 했는데 우리 사회가 아무나 할 수 있는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니다.

뉴스는 전반적으로 좋은 내용보다는 부정적이거나 어두운 내용들을 많이 보도를 하시게 되는데 9월 한 달 동안 대전 지역에서 어려운 일들 또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걸 취재하시고 내용들을 고민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사회 안에서 인권센터나 지원센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권이나 공동체나 시민의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센터들이 12월에 문을 닫는다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보도가 있나 찾아봤는데 그런 내용들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하고요

지난번 사장님께서 역사나 우리가 조금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게 언론의 내용이 아닐까 말씀하셨는데 쉽게 지나가는 행사성 보도가 아닌 지속적으로 시민의식이나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언론에서 다뤘으면 좋겠고요.

시민 의견이나 참여 같이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은 빠지고 행정 편의로만 움직이는 내용들... 쉽사리 폐쇄시키고 의견 수렴 과정 자체가 없었던 부분들은 시민 의식, 공동체, 인권과 관련된 내용들이 폭력적으로 느껴진다고 생각해서 불편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대전MBC가 40대 이상 50대 분들이 보시는 언론으로 집중하신다고 하면 어른들이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언론에서 집중 보도 등 도와 주는게 필요하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손병우 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윤지석 위원님 의견 들겠습니다.

#### 윤지석 위원

우리가 자율적이었는지 사회나 나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했는지 우리의 품위가 작년보다 올해가 어제보다 오늘이 올라갔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더 잘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더 단합하고 뭉쳤는지...

우문현답이라고 있죠. 기자들에게 통용되는 우문현답은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말이 있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기자분들이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쓰지 마시고 현장의 글과 그 사실에 대해서 썼으면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본 한 달이었습니다.

이진희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지난 9월 한 달은 참 우울했죠. 서이초 교사 사건이 생기자마자 대전에서도 선생님이 안타까운 길을 갔는데 우리 사회가 인성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영방송으로서 인성 교육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은 정체성을 가졌는지 본질을 회복하고 정체성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은 학생다울 때가 가장 멋있고 선생님은 선생님다울 때가 가장 멋있고 학부모는 학부모다울 때가 가장 멋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더욱 더 품위를 올리기 위해서는 그런 방송을 내보낼 때 너무 감성적인 것은 물론 지금은 애도해야 할 시기고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성을 찾고 감성보다는 이성을 중시하는 방송이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교육 현장이 많이 망가져 있다는 것을 뉴스에서 보지만 <시사M>에서 손종학 교수님이 '학교는 교육과 훈육의 장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게 학교의 현실입니다. 대안학교를 보내는 학부모들이 왜 대안학교를 보낼까요? 비인가 학교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왜 비인가 학교를 보낼까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보내는 학부모도 있지만 인성 교육 때문에 보내는 분들도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좋은 교육 모델을 방송에서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전에 은사님들을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있었잖아요. 다른 방송국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학부모와 사제시간에 중요했던 그런 감격의 순간들을 찾는 프로그램들을 하면 어떨까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시사M>을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임세혁 아나운서님, 손종학 교수님, 강은선 기자님 아주 열심히 해 주시는데 후쿠시마 처리수와 오염수 방류에 관한 내용들을 보면 패널로 나오신 한 분이 반대하는 의견만 내보내고 있는데 양쪽으로 패널을 구성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원자력연구소에 다니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바나나 한 개 정도의 방사선 양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는 말을 하지만 그런 분들이 쉽사리 방송에 나가서 말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물때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되는 분들이 양쪽에서 패널로 나와서 보여줬으면 어떨까 하는 걸 느꼈고요.

좋았던 점은 실시간으로 오염 지표를 충남 해양호를 통해서 도청의 홈페이지에 방사선 양을 보여준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방송이 돼서 참 안심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종에서 심폐소생술 미담을 보여주는 것은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뒷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이 들어가면서 약간 지루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약하게 하고 미담 하나를 더 소개하는 게 어떨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출연자분들의 표정이 제가 보기에는 긴장되어 있는데 저도 젊어서는 TV에 나갈 때 표정이 좀 굳어 있으면 PD님이 긴장을 푸시라고 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제가 보면 긴장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테이블에 물컵이 올려 있었는데 물컵이 안 어울리는 느낌이 들어요. 차라리 그 물컵을 내리든지 아니면 '시사M'이라고 새겨서 카메라 쪽을 향하게 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교수님하고 아나운서를 투샷으로 비춰지는데 카메라가 여유가 있어서 한 분씩 비추면 다른 분은 자유롭게 물을 마신다든지 자료를 찾는다든지 편할 텐데 방송인이 아닌 일반인의 눈에는 그런 게 보였습니다.

임세혁 아나운서가 가능하면 다음번에는 행복한 뉴스 훈훈한 뉴스를 가지고 찾아뵙자고 하면서도 계속 어두운 뉴스만 나오는데 멘트에 그치지 말고 훈훈하고 행복한 것을 찾아서 방송했으면 하고, 프로그램 배치에 있어서 마지막에 좋은 영화 보고 나오면 기분이 참 상쾌한데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해 줬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8월 31일 도로 청소에 관한 방송이 나왔습니다. 도로 청소를 구가 아니라 시 관할에서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내용이었는데 일반 시민들도 운전을 하면서 담배라든지 쓰레기를 투기하지 않는 그런 습관을 갖자는 멘트를 해주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8월에 도로 투기에 대한 뉴스를 우연히 다른 방송에서도 봤거든요.

YTN에서 봤는데 우리나라가 담배를 6조 개비 생산을 하는데 4조 5천억 개가 길거리에 버려지는 걸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길거리에 75%가 버려지기 때문에 담배 회사에서 매년 폐기물 부담금으로 890억 원을 받는다는 뉴스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더라고요. 대안을 제시하는 뉴스로 잠깐이라도 차 안에 쓰레기 봉지를 준비하고 있는 운전자의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담뱃재를 재떨이 안에 버리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우리 국민들을 계몽하고 품격을 높일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우 위원장

아주 꼼꼼한 지적 감사합니다. 이어서 장래숙 위원님 말씀 들겠습니다.

장래숙 위원

지역에서 대전MBC를 볼 때는 보통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중점으로 보잖아요. 뉴스데스크에서 '결혼장려금을 추진한다', '대전의료원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명절에 교통대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 등 하루에 한 가지 정도는 대전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정책들을 대전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뉴스를 보고 만족스럽다고 느껴지고요. 대전에서 일어나는 정책들을 시민들이 조금 더 알 수 있게 정보들을 알려주는 그런 뉴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청소녀들이 연예인을 보면 환호하고 좋아하잖아요. 저도 BTS를 좋아하는데 이번에 뉴스에 여성아나운서를 너무 잘 발탁해서 저는 눈에 쏙 들어왔어요. 발음도 좋고 예쁘게 생기시고 뉴스 진행도 잘하시고 그래서 MBC를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만족스럽고요.

저는 청소년 관련 단체에 있다 보니까 이번에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에 대한 예산이 거의 영원일 정도로 보조금이 삭감이 됐어요. 청소년 활동이라든가 청소년 참여위원회라든가 저희 같은 경우는 12월 말로 2개 사업이 종료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찾아가서 얘기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지역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원하는건 중앙에서는 방송에

나왔지만 지역 내에서 이런 움직임들도 혹시 취재가 가능하시다면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우 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마정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마정미 위원

9월 개편으로 대전MBC 프로그램이 굉장히 풍성해져서 아주 역동적이고 생동감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개편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몇 가지 의견 대신 느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생네컷>은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네이밍도 좋고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인생네컷이라는 포토 시스템을 제목으로 사용하셨고 구술사 형식으로 장인이나 전문가 혹은 외골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서전 회고록 같은 걸 다루는 형식인데 어쨌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삶의 애환 그리고 직업의 특성들을 잘 보여줘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대장장이 그 다음에 배달 노동자 두 프로그램 다 좋았던 것 같고요.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들의 직업에 대해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반가웠던 건 <시사M> 시사 프로그램이 다시 부활했는데요.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소프트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많이 고민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소프트한 시사 토크쇼가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8월 30일, 9월 7일, 9월 14일 방송분을 봤는데요. '뉴스브리핑', '풍문으로 들었소', 'PD가 간다' 세 꼭지로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뉴스브리핑'도 그 주제 가장 중요한 이슈들을 잘 다뤄주고 있었고요. '풍문으로 들었소'에서도 뉴스 망에 잡히지 않는 그런 것들을 다루어서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특히 외래종 동물이 유기되고 있다는 내용들이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PD가 간다'가 본격적인 시사 프로그램 안에서의 꼭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내용들이 다 좋습니다. 특히 R&D 예산 삭감한 내용, 항우연 문제들 등 대전에서 꼭 다뤄야 될 만한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리고 소프트하게 다루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염수 문제도 지역 문제와 지역 현안, 어업과 연결해서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접근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풍문으로 들었소' 하고 'PD가 간다'가 포맷이 비슷해요. 현장 취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패널로 참가하신 전문가 인터뷰가 진행이 됩니다. 두 꼭지 같이 그런 패턴으로 가니까 윤지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약간 지루한 느낌이 있었다' 심폐소생술 말씀하셨듯이 한 꼭지 안에 축약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길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시간에 루즈한 느낌을 줄이고 한 꼭지 정도 더 소프트한 걸 넣으면 더 다채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M> 포맷이 조금 바뀐 게 있더라고요. '오늘의 면접'이라는 꼭지가 들어갔는데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일단 굉장히 내용도 참신하고 시도 자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면접 형식으로 지역의 기업을 설명하고 홍보를 하는 방법 그리고 이영중 씨의 너스레 했던 연기가 아주 감칠맛 있게 잘 다루어진 것 같습니다.

'골목의 맛'이 새로 편성된 것 같은데 '이슈를 추적하는 남자'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 대신 '골목의 맛'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추남'은 시사 프로그램이 신설됐으니까 그쪽으로 역할을 맡겨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골목의 맛'도 지역의 숨겨진 맛집을 찾아가고 또 문화를 보여준다는 데 의미가 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다른 먹방하고 차별화를 어떻게 이룰까 이게 숙제일 것 같습니다.

보도는 대체로 좋았던 것 같고요. 극단적 선택을 했던 대전 교사 문제를 계속 관심을 갖고 다루고 계신 걸 느꼈어요. 그 보도에 대한 애정과 관심도 칭찬할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본사에서 만든 특집 다큐 '백종원 사장이 되다' 예산시장 프로젝트 이게 굉장히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인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산이어서 아쉽더라고요. 우리가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우 위원장

아주 자세하고 전문적인 분석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정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정동 위원

개편을 통해서 새로운 시사 프로그램이 들어온 것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주제 선정이나 내용 자체를 그동안 계속 고민했던 게 지역 이슈이기도 하지만 전국 이슈이기도 한 내용들을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이었는데 적어도 이번 세 편에 있어서는 다 만족할 만한 내용이 아니었나...

R&D 예산 축소와 항우연 문제는 우리 이슈이기도 하지만 전국적인 이슈이기도 했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마찬가지로 철근누락 아파트 문제까지 모두 지역 이슈이기도 하지만 전국 이슈들을 시사 프로그램으로 잘 녹여냈다는 점에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포맷이 잡혀가는 시기라 아직까지는 아쉬운 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부분이나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잘 받으셔서 조정하면 대전MBC에서 다시 한 번 자랑할 만한 간판 시사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도 관련해서 요새 묻지마 폭행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이게 전문가 영역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묻지마 폭행이라는 표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묻지마'가 아니라 이유가 있는데 이걸 묻지마 라고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

과 재수 없이 당한 사람으로 만 끝나고 사회적인 요인이나 아니면 이후에 재발 방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잘 표현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대전MBC도 실제 리포트에서는 무차별 폭행이라고 하셨는데 자막에 묻지마 폭행이라고 나간 부분이 있어서 고민은 분명히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다음 날 추가 취재를 통해서 무차별 폭행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런 영역에서야말로 언론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걸 어떻게 명명을 하고 이후에 문제들을 얘기할 것인가... 근데 너무 쉽게 묻지마 폭행이라는 표현이 쓰이다 보니까 문제들이 심각해진다는 지적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대전MBC에서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신설 프로그램인 만큼 <인생 내컷>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어요. 채플린이 ‘삶은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 다가가 보면 비극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채플린은 비극적인 삶을 희극으로 승화시킨 천재 코미디언이었는데 <인생 내컷>이 ‘나의 인생에서 내 컷이다’ 해서 휴먼 다큐 영상을 강화해서 전달한다는 그런 형식적인 특징을 보였는데요.

<인생 내컷>을 그림만 보면 너무 예쁘고 영상미가 아주 좋더라고요. 거기에 굉장히 정성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고, 또 무슨 렌즈를 쓰는지 피사체들이 예쁘게 담기는 그림들이 나와서 눈길을 끌고 기분을 청량하게 해주는데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을 가까이 들어가서 보니까 14세 때부터 대장장이를 하면서 고생고생해서 자기 인생을 지금 장인의 수준에 올려냈는가 또 아들은 어떻게 고민을 해서 칼갈이를 이어받게 되었는가 이런 삶에 대해서 반추해 볼 만한 깊은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칭찬을 하셨지만 배달 노동자 길한샘은 중간에 자세히 보다 보면 너무 감동이 많이 있고 이 인물이 너무 아름다운지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한샘 배달 노동자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둘러대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면서 콩나물 국밥 하나 먹는 것도 최대한 그림을 예쁘게 표현했는데 그들이 나누는 대화는 심각한 얘기인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의 우리의 삶에 대해서 부담감이랄까 이런 것을 시청자들도 동참할 수 있게끔 천천히 안내해 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라이더 유니온 길한샘 부분은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14세 대장장이 편에서 <인생 내컷>의 영상으로 소통한다는 의미를 더욱 살려가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이런 영상 미학을 견지시켜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아들이 1년 동안 기계 작업을 멈춰놓은 채로 칼 가는 자세 연습만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을 인생 내 컷의 어

떤 취지를 더 살릴 수 있다면 이렇게 말로만 나오는 부분을 한 장면 정도 촬영을 해서 칼을 연마하는 고독한 연마자의 뒷모습을 실루엣 영상으로 들어가면 영상적인 길잡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국제태권도대회는 인터넷에만 올라와 있는 거죠. 저는 태권도를 좋아하는데 서울MBC도 1년에 한 번씩 태권도 편성을 해요. 스트리트 파이터처럼 때리고 맞으면 점수를 에너지가 줄어드는 걸로 표현하는데요. 대전MBC에서도 충남태권도협회와 국제태권도대회를 8회 정도 해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댓글을 보니까 방송과 관련해서는 정리를 해 주셨는데 충남태권도협회의 대회 진행과 관련해서 어린이 참가자들이 새벽같이 왔는데 오후 늦게까지 대기하고 있어서 다들 지쳐서 자고 있다는 댓글이 3개쯤 있더라고요. 주최하는 입장에서 댓글 좀 보시라고 전달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남태권도 공연단에서 했던 태권무공원이 유관순이었다는 것에서도 놀랐거든요. 물론 8월이라서 시의성도 있고 충남의 상징인 유관순과 태권도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국난 극복의 의지들을 결합해서 태권도의 주제를 유관순으로 잡았다는 것도 굉장히 눈길을 끌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어서 답변을 진행해주시죠.

이상욱 편성국장

8월 31일자로 개편을 했는데 여러 의견 주신 것처럼 이번 개편은 시사 프로그램 런칭과 MBC 충북과 공동 제작하는 휴먼 다큐 <인생내컷> 두 가지가 핵심이 되고 아직 초창기라 많은 분들이 의견 주신 것처럼 앞으로 포맷이라든지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강해야 될 부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윤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내용을 다룰 때는 패널들을 균형감 있게 차라리 그냥 뒤에까지 밀어버리는 방법이 나왔겠다는 그런 평가가 사후에 저희가 했거나중에 이런 건이 있으면 균형감 있는 패널을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많이 느꼈는데 출연자들이 긴장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매번 가서 얘기를 하는데도 시간이 지나면 안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계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MC 풀샷 문제는 저희가 카메라 감독 인력을 확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카메라 개수하고 사람 수하고 안 맞다 보니까 벌어지는 일이라서 확보하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마정미 위원님께서 아쉽다고 말씀해 주신 ‘풍문으로 들었소’ 꼭지도 저희가 고민 중입니다. 그 앞에 꼭지는 좀 짧게 해서 아예 코멘트 없이 그냥 뒤에 VCR로 넘어가는 부분이 조금 더 긴장감도 유지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것도 아시안게임으로 결방 기간 동안 포맷을 다시 다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가능하면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면접’은 처음 나온 게 아니고 4개월째 방송 중인데 꼭지를 못 보셨건 같네요. 저희가 RAPA 지역방송 제작지원작으로 선정이 돼서 6월부터 방송이 되고 있고요. 취지는 지역의 우수 기업을 소개하는 동시에 지역에서 구직하는 청년들한테 기업 정보를 제공하면서 기업 홍보와 구직자 양쪽을 다 만족시키는 예능 형식으로 풀어내는 콘텐츠고 완전 지역 기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작은 11월까지 완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골목의 맛’은 지적하신 것처럼 다른 먹방들과 차별화될 수 있게 음식 혹은 식당에 스토리를 발굴해서 시청자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는 게 지역성의 밀도를 높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방향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맛있는 것이 아니라 음식에 녹아 있는 스토리를 발굴해서 전해 드리려고 앞으로도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사M> 포맷은 계속 점검해가면서 들여다볼 예정이고요. 손병우 교수님께서 <인생내컷>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내컷>은 중복하고 저희하고 공동 제작인데 제작진이 대전 한편 충북 한편 이렇게 돌아가는데 각 사가 아이템 인물을 선정하는 데 아직은 시각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점이 모아지지 않았는데 다음 대전편에서 성심당 임영진 대표 편이 거의 촬영 마치고 편집 작업 들어가고 있고요. 바라보는 시점이 달라서 영점을 계속 맞춰나갈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미시적인 삶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자기 직업이나 자기 인생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인생을 반추하는 것이냐 시각 차이가 있는데 칭찬해 주신 영상미를 계속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영점을 같이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남권과 강원권하고 프로그램을 교환하기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도 이런 좋은 콘텐츠를 선보이면 좋을 것 같아서 다른 계열사 교환 프로그램 목록에 넣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웅 보도국장

이진희 위원님 말씀해 주신 인권에 대한 부분들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단체들에 대한 지원 문제는 뉴스에서 다뤄지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수년 전에는 인권에 대한 부분들이 뉴스에 화두가 되고 많이 강조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인권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가치가 또 몇 년 전보다는 오히려 더 퇴보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많이 다뤄지는 시기가 있었는데 비단 최근 예를 보면 충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다시 발의가 됐다가 효력 정지 처분됐습시다라는 인권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치를 추구해야 될 부분인데 정치적인 논리 등에 따라서 휘말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권에 대한 근본적인 관심이라든지 최근에 여러 가지 교권 문제 같은 것들도 결국에는 인권 문제에서 비롯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관심을 갖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등 교사 이슈는 서이초 이후에 대전에서 또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서 최근에 가장 뜨거운 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 공교육이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충격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이 어떻게 다시 정상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질 생각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교육들이 벌어지면서 교육에 대한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생각들까지도 도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건뿐만 아니라 사건 이면에 있는 우리 교육의 현실에 대해서 물론 뉴스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관할에 대한 뉴스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적해 주신 교통 문화에 대한 부분도 이해를 하는데 뉴스의 표출점은 실제 도로 보수 작업에 인력들이 노출된 위험에 대한 부분이었고 열악한 구 재정으로 감당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단속이나 규제에 의해서 교통 문화를 확립하는 부분들이 그 동안은 여러 캠페인들을 통해서 많이 확립되었습니다만 이제는 스스로 선진 교통 문화가 자리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보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전 시정이나 도정이라든지 시민들의 삶에 관련된 정보를 뉴스로 보도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9월 한 달간 사건 사고들이 워낙 많아서 그런 뉴스들을 많이 다루지 못했습니다. 뉴스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뉴스들이기 때문에 시민들과 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뉴스들도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 위원님께서도 교권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이슈는 이번에 대전 모 선생님의 극단적 선택이 단순히 사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드러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초기에 은폐 의혹이라든지 그리고 교사 장악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얼마나 심적으로 압박이 됐는지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취재를 하고 있고요.

어느 지점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 문제는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버릇없는 아이들 훈육의

문제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고 물론 그 지적이 틀렸다는 말씀은 아닌데 저는 인권이라는 부분도 교사의 인권도 있지만 학부모의 인권 또 학생들의 인권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 인권이 서로 충돌하는 지점에서 새롭게 문제 제기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서 공교육 정상화라는 너무 큰 화두이긴 하지만 실제 여러 가지 벌어지는 교육 현장에서의 문제점들을 뉴스의 틀만으로 담아내기도 많이 버거운 부분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그런 갈등과 그동안의 문제점들이 노출되는 시기라고 보고 계속 이슈를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보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네이밍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사건이나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걸 어떻게 네이밍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입니다. 그래서 ‘문지마 폭행’을 최근 이상동기 범행이라고 하죠. 가해자 입장에서는 구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동기를 특정할 수 없는 범죄들을 이상동기 범죄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떤 경우에는 많이 알려진 이름들을 언론 매체에 따라서는 네이밍들을 다르게 하는 시각들이 있어서 통일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큰 사건이 벌어지면 계열사 보도 책임자들의 단톡방이 있어서 거기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네이밍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역에 대한 낙인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초창기 사고 당시 10.29 참사라고 네이밍을 했듯이 조심스러운 지점들이 많습니다. 특히 한 번 부르게 되면 그 사건이나 이슈에 대한 그 단어가 고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신경 쓰고 있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시청자들이 쉽게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들과 지적을 감안해서 어떤 이슈라든지 사건이 있을 때 그냥 단순화시키지 않고 네이밍 조차도 고민을 하는 그런 뉴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충남태권도협회와 저희가 대전MBC 국제오픈태권도대회를 올해 8회째지만 9년 동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했고요. 방송사가 이름을 걸고 대회를 하는 게 합창단처럼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안 되기 때문인데요. 흔히 할 수 있는 게 골프대회지만 골프대회 대신에 우리나라 국기이기도 하고 또 어린이들 저변이 넓기 때문에 태권도 대회를 어렵게 하고 있는데요.

운영과 관련해서는 충남태권도협회가 주도를 하고 저희는 방송 과업을 콜라보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대전MBC 국제오픈태권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의적인 책임이라든가 최종적인 책임은 저희가 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던 점은 협회에 다시 주의를 환기시키고 더 철저히 관리해서 내년부터 그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요.

두 번째는 사장님께서도 언급하실 부분이지만 올해가 59년이면 내년에는 60주년입니다. 60주년이기에 때문에 상당히 큰 행사를 기획을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음 시청자위원회에서 60주년에 지역의 대표적인 방송사로서 대전MBC가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는지 아이디어를 주시면 감사히 받고 내년 사업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은표 간사

혹시 추가 질문이나 답변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손병우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고 김환균 사장님 마무리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60주년 사업 아이디어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한 달 동안 저희가 열심히 생각해 보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도 알찬 모니터 의견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제작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환균 사장

여러 가지로 지역 방송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지만 기업이 힘들어지니까 광고 집행을 잘 안 하고 방송 산업 전체가 힘든데 지역은 더 힘듭니다. 제가 편성국장한테 늘 하는 이야기지만 ‘공모해서 되면 프로그램을 하고 안 되면 안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꼭 해야 될 건 기획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겁도 나요. 한다고 달려들면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스럽습니다.

개편한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미와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까지 이야기를 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권 문제가 터지면서 권리와 권리가 충돌을 하는 모양새가 되는데 이건 어느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가 정말 머리 맞대고 숙고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방송프로그램하고는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만나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됐지 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성찰과 어디로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반성을 모색하는 건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걸 다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토론회 같은 것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시대상조인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좀 더 고민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에 경청을 하고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방송이 옛날보다 그 힘이 많이 약해지긴 했지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일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고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고쳤으면 하는 것들을 찾아내서 이야기할 정도로 시청자 위원님들을 괴롭혀 드리는 품격과

질 높은 프로그램들로 가득 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표 감사

이상으로 9월 시청자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풍요로운 명절 보내십시오.